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12일 화요일 음 9월 7일 (14월)

한라칼럼

기상정보

호리고 비



제주에는 호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2°C, 낮 최고기온은 24-26°C로 전망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recipitation probabilities for various times and locations like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Jeju Island.

식중독지수 관심, 자외선지수 보통

Table with 4 columns: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Rows show air quality levels for Jeju Island.

Table with 2 columns: 주간예보, 내일, 모레. Rows show daily weather forecasts for Jeju Island.

월드뉴스

선박 하루 대여료만 '1억6000만원'

미국서 쇼핑철 앞두고 대란

윌마트와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이 물류 위기 돌파를 위해 선박 대여에 나섰다.



미국 서부 항만의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연말 대목을 앞두고 미국 서부 항만 물류 대란으로 비상이 걸린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다퉀 선박을 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규모가 작은 만큼 LA 항만 등 현재 병목현상이 발생한 대형 항만이 아닌 주변의 소규모 항만에서 통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국 유통업체들이 아시아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을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80일 정도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현재 선박 대여에 드는 비용은 하루에 14만 달러(한화 약 1억6700만원) 선으로 물류업체 요금에 비해 두 배 이상이다.

헬리콥터나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쇼핑 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앞둔 유통업체들은 결국 해결책으로 전세 선박을 선택했다.

선박중개업체인 브래머 ACM 쉽브 로킹의 조너선 로치는 "아직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내년이 되면 유통업체들이 직접 선박을 빌릴 필요성이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류 업체들이 대어하는 선박은 한꺼번에 2000개의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물류 업체들의 대형 선박과 달리 보통 1000개 안팎의 컨테이너를 운반한다.

한라일보 advertisement box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



김윤우 무릉외갓집

요즘 마늘농가들은 바쁘다. 엇그제 내린 비로 어느 정도 갈증은 해소된 듯 하나 타는 목마름은 여전하다.

마늘은 일일이 심고, 뽕고, 자르고, 담고, 날라야 하는 과정 전부가 사람 손이 필요한 작물이다.

어떻게 잡은 인부 일정도 비날짜로 인해 작업을 못 하게 되면 대기 수번

마늘농가... 사람이 그림습니다

이 저만치 밀려나 있고 중간에 좋은 날씨를 만나도 해도 그 순번까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기다려야만 한다.

그래서일까? 마늘주산지인 대정읍을 한바퀴 순회하면서 살펴봤는데 마늘파종면적이 전년보다 약 17%정도 준 것으로 추정됐다.

달 가고 재배방법도 수월한 양배추나 양배추, 브로콜리 등 양채류 주산지가 기존의 한림, 애월지역에서 마늘주산지인 대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 가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마늘주산지인 대정지역에서까지 일손이 딸가는 양채류로 작목전환이 이뤄질 때 양채류에 대한 과잉생산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마늘수확기나 절단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마늘파종기만큼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오래전부터 마늘파종기에서부터 수확기와 절단기 등 농업기술센터나 농기계제조회사에서 연구하고 있고 또 상품 출시도 하고 있다.

최근에 대정읍 상모2리 지역에 선보인 마늘파종기는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고 있다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열린마당

제주감물염색 '디자인하다 박지혜 섬유전'



고범석 돌문화공원관리소 학예연구사

같은 제주도에서 농어민들이 작업복이나 일상복으로 즐겨 입던 옷이며 제주도를 상징하는 옷이다.

같은 감즙으로 염색을 하는데, 풋감의 주요 성분인 탄닌이 섬유와 결합해 응고되면서 섬유를 뽕뽕하게 만드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같은 감을 많이 흘려도 몸에 달라붙지 않는다. 천연감즙이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땀이 묻어도 옷감이 잘 상하지 않고 땀냄새도 나지 않는다.

를 잘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물로 염색하던 데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감물 염색은 탐라의 오래된 문화원형이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제주 같은의 염료인 풋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즙 만들기, 감물들이기, 바래기 등 같은 제작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많은 관람객들이 오셔서 들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묻어나는 돌문화공원의 자연풍광과 함께하며 모처럼 열리는 제주의 특색을 알리는 뜻깊은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주 체육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



강권식 전 제주영속학교 교장

세계대회에서 국위선양을 하는 선수들을 볼 때 경외감을 느끼는 한편, 제주에서 배출되는 세계적인 선수는 찾아보기 힘들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생활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가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처럼 생활체육과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체육 엘리트 지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해 조기에 체육 영재를 발굴하고 전문 체육인으로

양성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에는 각 지역마다 체육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체육고등학교 설립 시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론화가 된다면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듯 체육 분야에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제주 체육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체육인들은 물론 지역주민과 학부모님들이 오래전부터 공감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쓰여졌던 각본 없는 드라마.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제주 체육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것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내 이웃들과 함께 맛보고 싶다.

Advertisement for 'All kinds of Gamgul (Mango) variety' featuring various mango types like Wintprince, Hwanggyeong, and Redhyang.

Advertisement for 'Gamgul (Mango) variety' featuring Asmi 4, 5-year-old mangoes and other varieties like Yura, Cheonhyang, and Gyeongcheon.

Advertisement for 'Quality excellent domestic mango (New variety) Gamgul Port variety' featuring various mango typ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eju Hanra Farm.

Advertisement for 'Domestic development excellent (Our variety) Gamgul (Mango) variety' featuring Wintprince, Hwanggyeong, and other mango types.